

허정무호 “깜짝 발탁은 없었다”

남아공행 예비명단 30명 발표...신·구 조화에 중점

안정환·이동국·염기훈 복귀...설기현 재승선 실패

‘올드 보이’ 안정환, 이동국과 ‘인 발 달인’ 염기훈이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출전 희망을 살린 반면 설기현은 허정무호 재승선에 실패했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플레톤 컨스트랄레에서 나이키의 대표팀 홈경기 유니폼 발표회를 겸한 기자회견에서 남아공 월드컵에 나설 예비 엔트리 30명을 직접 발표했다.

‘깜짝 발탁은 없다’던 허정무 감독의 예고처럼 지난 2007년12월 허정무호 출범 후 대표팀을 거쳐 간 선수들이 30명에 들었다. 박지성과 이청용, 박주영, 기성용, 일본 J-리그의 이근호 등 해외파 12명이다.

공격수는 대표팀에서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주영과 이근호 외에 안정환과 지난해 K-리그 득점왕 이동국이 발탁됐다. 신에 공격수 이승철도 일단 예비 태극전사에 포함됐다.

올해 초 부상으로 재활을 해왔던 염기훈이 허정무호에 승선한 반면 설기현은 예비 명단에서 빠져 회비가

엇갈렸다.

‘백전노장’ 풀키퍼 이운재가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 임무를 맡고 정성룡과 김영광의 뒤를 받친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김정우 듀오가 주전 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김남일과 조원희, 신형민, 구자철도 백업 멤버에 들었다. 좌우 측면 미드필더는 박지성과 이청용의 우위 속에 김보경과 김재성이 주전 자리를 위협한다.

수비수로는 좌우 풀백으로 이영표, 김동진과 오범석, 차두리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대표팀은 오는 1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국내 마지막 A매치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20일을 전후해 25~26명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 엔트리 23명을 개막 열흘 전인 6월1일까지 FIFA에 통보해야 한다.

허 감독은 “신·구 조화를 잘 이뤄달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느 팀보다 경기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꿈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투혼으로



호랑이무늬 대표팀 새 유니폼
남아공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홈 유니폼이 지난달 30일 공개됐다. 새 유니폼은 예전보다 더 강렬해진 붉은색 상의에 대표팀의 투혼을 상징하는 호랑이 무늬를 전체적 디자인 패턴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무장한다면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는 16일 에콰도르전은 국내 선수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해외파는 컨디션을 점검하는 중요한 경기”라며 마지막 홈 A매치 후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아공 월드컵 예비 엔트리(30명) ▲GK=이운재(수원) 정성룡(성남) 김영광(울산) ▲DF=이영표(알힐랄) 김동진 오범석(이상 울산) 차



생활 게시판

화측

▲조동수(전 광주일보 주필)·서경숙씨 장남 찬웅군 임영진(기독정신병원장)·이명하씨 장녀 선경양=1일(토) 오후 5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그랜드볼룸)

▲그레고리 레시·페추리시아 케뜨린 맥카벌 레시씨 아들 준군 이준근·박복순씨 딸 지영양=1일(토) 오후 1시20분 동구 지원동 삼영웨딩을 2층(사파이어홀)

▲손상훈(그린장례식장 상무)·김미라씨 장남 준호군 황인배·김

영순씨 차녀 미영양=1일(토) 낮 12시40분 광주시 광산구 화이트에식장 1층(그랜드특실)

▲이희재·배영원씨 장남 광세군 김종범(전 국민은행 호남북영업지원본부장)·김민자씨 장녀 태은양=1일(토)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이성식((유)고속에너지 대표)·이숙경씨 장남 현준군 민석기·전청하씨 장녀 은영양=1일(토) 오후 1시 신안비치호텔 1층(아이리소홀)

▲윤광장(5·18기념 재단이사장)·정금자씨 차남 오혁군 박종술·김희순씨 장녀 미옥양=2일(일) 오전 11시40분 광주 그랑시아 웨딩타워 1층(다이아몬드홀)

무음

▲김종섭씨 별세 홍호(재미)·광호(수자원기술 본부장)·두호(개인사업)·진호(재미)·석호(사업)·영호(사업)·경호(의사)·정호·신정씨 부친상 김기곤(삼육대 총장)·한미권(목사)씨 빙부상=발인 2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정도순씨 별세 강형탁(북광공세무사)·현숙·미숙·미경·미자·영인씨 모친상=발인 2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김아연씨 별세 진준씨·현정씨 모친상=발인 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연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피겨 여왕’ 김연아(20·고려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지난달 30일(이하 한국시각) 미 유력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에 따르면 김연아는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영웅(hero)’ 부문에 뽑혔다.

미국이 낳은 ‘피겨의 전설’ 미

셀 판은 타임에 추천한 기고문을 통해 “나는 김연아처럼 예술성과 스포츠를 잘 조화시킨 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극찬했다.

김연아가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007 제임스 본드의 메들리부터 조지 거윈의 ‘피아노 협주곡’까지의 선율에 맞춰 펼친 연기는 피겨스케이팅의 일급을 바꾸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KIA 어린이날맞이 이벤트 다채

KIA 타이거즈가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

KIA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낮 12시부터 초등학생 100명이 참가하는 ‘물로켓 경연대회’를 갖는다.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상품권과 사인복, 모자, 로보트 장난감 등 다양한 상품이 주어진다.

동화 및 만화 캐릭터 복장의 코스프레 공연과 선수단 사인회도 진행된다.

장내 이벤트도 펼쳐진다. 오후 1시30분부터 그라운드에서 어린

이와 선수들이 함께 하는 ‘99초를 잡아라’와 선발 출장 선수들이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입장하는 ‘스타팅멤버 하이파이브’ 행사가 준비됐다.

또 지정석 입장 어린이 390명에게는 티셔츠가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일반석 입장 어린이에게는 야쿠르트 1000명이 팬서비스로 증정된다.

한편 이날 시구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타이거즈 팬 하상태(8·운남초 1년)군이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여수시 도민체전 2년만에 정상 탈환

여수시가 2년만에 도민체전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화순에서 막을 내린 제49회 전남도민체전에서 종합점수 3만3425점을 획득해, 지난해 광양시에 내줬던 종합우승컵을 되찾았다.

여수시에 이어 순천시가 2만 9200점으로 2위, 목포가 2만6225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고흥군(4위·2만5300점)·신안군(5위·2만 4900점)·화순군(6위·2만 4025점)·나주시(7위·2만3725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개막, 육상·수영·태권도·사격·배드민턴·복싱·유도·사이클 등 20개 종목에 걸쳐 5992명의 선수단이 펼쳤던 4일간의 열전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장 1위는 목포시에 돌아갔고, 강진군·나주시가 2·3위를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은 무안군이 선정됐고,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태권도협회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선수



지난달 30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헤터에서 열린 제49회 전남도민체육대회 폐회식. 왼쪽부터 2위 순천시,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1위 여수시, 3위 목포시 대표. <전남도 제공>

순천·목포 각각 2,3위...내년 나주 개최

‘육상 3관왕’ 여수시 우재은 MVP 영예

상의 영예는 육상 3관왕(남자 100m·200m·400m계주)을 차지한 여수시 우재은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무려 10계단이나 뛰어올라 4위를 차지한 고흥군이 성취상 1위를 차지했고,

신안군과 장흥군이 2·3위를 기록했다.

내년 제50회 도민체전은 ‘배의 도시’ 나주시에서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제 55회 호남예술제 성악 입상자

〈심사위원〉
정영기(전남대 교수)
강양은(호남신학대 교수)
조수현(광신대 교수)
길애령(목포대 교수)
홍승연(광주교육대 교수)

초등 1·2학년

▲ 최고상
55 박준경(광주삼육2)
▲ 금상
49 조성준(살레시오1)
61 이시열(광주교대광주부설2)
65 정유진(불로2)
▲ 은상
2 백승리(장흥2)
8 민소정(광주효덕2)
11 김시은(광주효덕2)
17 임나영(유안2)
43 임서진(문정1)
45 윤예준(광주송원2)
51 이수아(광주송원2)
62 김해민(문흥중앙1)
77 최혜민(불로2)
▲ 동상
6 김예진(광주교대광주부설2)
7 조유진(불로2)
28 신동연(광주삼육1)
33 김민재(만호2)
39 조서영(살레시오1)
40 나시윤(운리2)
50 김부민(빛고을1)
53 조 은(만호2)
60 유재원(여수한려1)
67 한다원(광주송원1)
76 나혜인(유안2)

▲ 동상
5 박준경(운리4)
8 정수화(운리3)
19 문채연(진만3)
21 오동현(광주삼육3)
22 한성재(광양제철남3)
33 김소연(신암4)
38 성주희(광주송원4)
42 함동우(월봉3)
45 이지솔(살레시오3)
51 최서형(금당4)
56 김도진(광주송원4)
59 문혜진(빛고을3)
61 조성은(살레시오3)
63 한유진(광주송원4)
66 정예원(유안4)
67 김민서(금당3)
70 신수미(광주송원4)
71 박민재(살레시오3)
81 문선영(광주송원3)
85 배유라(금호3)
87 선요원(광주학운3)
97 전인보(신암3)
103 전주원(불로4)
107 조수영(화계3)

초등 5·6학년

▲ 최고상
26 한재우(월봉6)
▲ 금상
17 노유민(선창6)
35 정서현(유안6)
▲ 은상
12 김수연(세광6)
27 유수현(광주송원6)
28 나세영(계수6)
43 황현웅(광주송원5)
44 이진우(목포용해5)
51 김시은(광주수창5)
53 양재민(문산6)
56 김수민(불로6)
72 김재형(광주교대목포부설6)
73 이소윤(수안5)
▲ 동상
23 고예람(광주남6)
29 서예설(운리5)
42 김예지(용영6)
45 이주연(양지5)
47 조수희(금당5)
49 김다은(양지5)
57 주수현(고실6)
59 박지환(광주송원5)
65 신미선(광주대성6)
※ 최고상 수상자는 컬러인물 사진 2매를 5월 6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초등 3·4학년

▲ 최고상
64 김 송(금당3)
▲ 금상
49 이정기(목포석현4)
77 한승민(살레시오3)
80 이재은(불로4)
109 박한민(월계3)
▲ 은상
15 서정민(진만3)
25 임이람(유안4)
26 이지우(금당4)
27 류도경(살레시오4)
32 김민서(광주송원4)
37 김태운(용암3)
60 주수영(고실4)
75 마서영(광주삼육4)
78 박수연(살레시오3)

마을까지 편한한-
금호장례식장
☎ 227 - 4000

故 정순심 (여/74세)
주/부 이윅기/임선씨
이영기/류미순,이영기/
女재 이선순,이정순
이재금/유영남

훈	장	훈	장
훈	장	훈	장
훈	장	훈	장

바다보다 푸른빛깔 산악순곡영동
명복을 빕니다
-금호장례식장 직원들-

넉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통합상조가 자랑스러운 파트너
가입문의 **1688-3740**

현대통합상조 전속도반 노우현